

## 고바이오랩, 면역 질환 소재 KBL382 중국 및 싱가포르 특허 등록 결정

- ▶ 뛰어난 면역 조절 및 항염증 효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고기능성 소재
- ▶ 단독 및 병용투여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한 후속 개발 진행 예정

<2024-03-18>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전문 기업 고바이오랩(348150)은 주요 면역 질환 소재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Lactobacillus paracasei*) KBL382의 중국 및 싱가포르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고바이오랩은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소재에 대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취득하는 등, 글로벌 권리 확보에 나서고 있다.

KBL382는 뛰어난 항염증 및 면역 조절 기능, 장관벽 밀착 연접 강화 효과 등을 동물실험 등을 통해 검증한 바 있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유래 고기능성 소재다. 특히 염증성 장질환 모델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여, 효과적인 치료제로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KBL382는 안전성이 뛰어나 장기 복용에도 문제가 없으며, 경구 투여가 가능하여 환자의 편의성 역시 고려할 수 있다. 경증 및 중증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경우 대부분 평생 약물을 투약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KBL382는 해당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는 혁신신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주요한 치료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5-aminosalicylic acid 및 인플릭시맵(Infliximab) 등과의 병용투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역시 충분히 기대 가능하다.

고바이오랩 관계자는 "당사는 핵심 소재인 KBL382의 글로벌 권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 단독 및 병용투여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한 후속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